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부제 제25446호] 주제 105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
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오수용
동지, 안정수 동지, 김용수
동지, 서홍찬 동지, 조용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
시였다.

풍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룡악산기슭
에 일떠선 룡악산비누공
장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
화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
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심한 관심
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비
누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가
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이
공장건설을 중시하시며 설계형성안도
어려차례나 지도해주시었을뿐만아
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투입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지난 8월 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몸소
공장이름을 룡악산비누공장으로 명명
해주시고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
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투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할 불타
는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온 나라에 라면지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치열한
돌격전을 벌였으므로써 연건축면적이
1만 8,400여㎡에 달하는 룡악산비
누공장을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
보기, 표준, 세계적수준의 비누공
장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물 이룩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장을 돌아보던
날이 었그제같은데 불과 몇달사이

에 규모가 대단히 큰 현대적인 공
장이 멋들어지게 완공되였다고, 인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
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
의 기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과학적인 기술공정설계에 기초하여
건축면적과 생산공간을 조성하고 설
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을뿐만아
니라 공장안락을 혼잡운데없이 꾸려나

왔는데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
하시였다.

원료준비, 전공용화, 물처리, 혼합교
반,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
정들의 자동화, 무인화물 높은 수준에
서 실현하고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통합생
산체제도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하시
였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여
러가지 물비누포장용기를 광범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출성형기들은 물
론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분석검
증하는 첨단설비들도 그르히 갖추어
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생산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

는데 삼루, 린스, 그릇세척
제, 가루비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이 그득
히 쌓여있다고 하시면서
불수루 흐뭇하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비누공장에서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
의 기지수와 생산량을
변차별로 높이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상표들을 더 세련시
킬데 대한 문제,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
를 철저히 지키며 종
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
일데 대한 문제,
비누생산용원료와
항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
서는 과업들을 제
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룡악산
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
누와 세척제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
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환하게 웃으
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